

'3퇴'와 평안

제 303기 2017년 10월 3일

2017년 9월 30일까지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성명한 인원:

2억 8,556만 명

뉴질랜드에서 2억 8천만 중국인의 '3퇴'를 성원하다

[명혜망] 2017년 9월 23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파룬궁 수련생들이 시 중심의 아오티아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2억 8천만 중국인이 중공 당, 단, 대 조직을 탈퇴(약칭 '3퇴')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을 경축했다. 요고대의 멋진 공연과 파룬궁 공법 시범은 행인의 시선을 끌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고 사진을 찍었고, 일부는 주동적으로 진상 자료를 받아갔다. 또 일부는 파룬궁 진상을 알고 난 후 자료 배포를 돋기도 했다.

인권변호사 케리 고어는 말했다. “먼저 2억 8천만 명의 중공(당, 단, 대 조직) 탈퇴를 축하드립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인들은 깨어나고 있고, 중공을 버려야만 중국에 더욱 좋은 미래가 있습니다. 중공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중공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조약’과 ‘국민 권리와 정치 권리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의 중공(당, 단, 대 조직) 탈퇴를 돋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마땅히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법 체포, 불법 감금, 고문, 세뇌, 노역, 심지어 생체 장기적출에 직면하면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세계에서는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중공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거듭 나 인류 문명의 휘황을 재현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아오티아 광장에서 인권변호사 케리 고어가 연설하고 있다.

뉴질랜드 탈당 서비스센터 책임자 허싼푸는 집회 연설을 통해 공산당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는 중공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앙, 문화와 전통을 파괴해 인류를 재난의 길로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두 번의 세계대전 전사자 합계를 초과한 1억 명이 넘는 사람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탈당 서비스센터는 아직 '3퇴'하지 않은 중국대륙 동포들이 빨리 중공의 당, 단, 대 조직 탈퇴 성명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그래야만 그들의 생명에 광명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원, 빨리 나를 실명으로 중공 사당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명혜망] 갈수록 많은 중국 국민이 중공(중공과 중국은 다르다)의 사악한 본성을 깨닫고 '3퇴(국외 탈당 사이트에서 퇴당, 퇴단, 퇴대 성명 발표)'를 선택하고 있다.

온 마을의 절대다수 주민이 '3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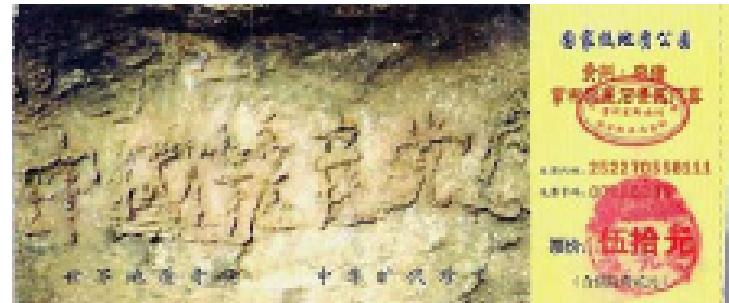
[지린 투고] 나는 아내와 함께 1995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우리 집에는 부채 모양의 밭이 한 폐기 있는데, 짧은 고랑은 계산하지 않고 북쪽 끝은 일곱 고랑, 남쪽 끝은 30여 고랑으로 긴 고랑이 한 뜻을 차지한다. 양쪽에 있는 이웃이 해마다 우리 집 땅을 비집고 들어와 현재 북쪽은 네 고랑으로 줄고, 남쪽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리 내외는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옥수수를 수확할 때는 옥수수자루가 정말 커서 땅은 작아져도 수확이 줄지 않고 여전히 많았다. 이를 본 이웃들은 모두 파룬궁 수련자의 땅은 옥수수 수확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파룬궁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어 우리가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연마해도 간섭하거나 신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3퇴'를 권했다. 현재 온 마을의 절대다수 주민이 '3퇴'를 했다.

정부 관원, 빨리 나를 실명으로 중공 사당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라오닝 투고] 한번은 내가 상점에 갔다가 만난 한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다. “동생, 당신은 파룬궁이 세상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들어 봤나요?” 그가 황급히 말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나는 그에게 반감이 있는 것을 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에게 '9평 공산당'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서 유명한 당나라 리춘평, 옌롄강의 주배도와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 등을 이야기하자 상대방은 아주 유심히 들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또 말했다. “파룬궁은 불가의 높은 경지의 수련



2002년 6월 구이저우에서 발견된 '장자석' 단면에 '중국공산당망'이란 6개의 큰 글자가 나타나 '천멸중공(天滅中共)'이라는 하늘의 뜻을 알려 주고 있다.

대법이므로 누구든 감히 파룬궁을 비방하면 곧 하늘의 법을 비방한 것이 되고, 누구든 감히 신과 하늘 앞에 생명을 걸고 내기를 한다면 곧 하늘의 규율을 어긴 것이 되어 후과가 극히 두려울 거예요. 중공 사당은 파룬궁을 비방해 하늘을 거역했고,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며 십여 년 동안 파룬궁을 박해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곧 '하늘이 중공을 멸하는' 가련한 결말이고, 진상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주 가련해요. '3퇴'해야만 평안을 보전할 수 있어요. 오늘 당신이 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좋은 인연인데, 미래의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드릴게요. (당을) 탈퇴하든 안하든 당신이 말한 대로 실행될 거예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저는 정부 관원인데, 저는 당신이 한 말을 전적으로 믿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빨리 나를 실명으로 중공 사당에서 탈퇴시켜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해 종결을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

[명혜망] 제72차 유엔 총회가 2017년 9월 12일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올해의 중점은 “사람을 근본으로, 평화롭고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다. 9월 18일 이른 아침, 파룬궁 수련생들은 유엔본부 앞 하마술드 광장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평화 청원을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장장 18년 동안 발생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공의 잔인한 박해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각국 수뇌들에게 호소했다. 또 중국 인권의 지속적인 악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박해 저지에 협력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는 이미 18년 동안 계속되었다. 중공 장쩌민 집단은 ‘진(眞), 선(善), 인(忍)’을 수련 원칙으로 삼는 파룬궁 수련생을 대상으로 장장 18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자행해 왔다. 중공 장쩌민 정치 건달 집단은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면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명예상으로 매장하고, 경제적으로 단절시키고,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때려 죽여도 그만이고,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친다.”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는 멸절 정책을 실시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번 박해 중에 적어도 파룬궁 수련생 수백만 명이 중공의 불법 체포, 노교, 유죄판결과 잔인한 박해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했고, 또는 생체 장기적출로 사망했다.

현재까지도 중공은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어도 45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판결을 받았고, 새롭게 밝혀진 2016년 판결인 수 125명을 더하면 모두 575명이다. 불법 판결은 28개 성시,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중공은 371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398번의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들은 186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196회의 무죄 변호를 펼쳤다. 현재까지 명혜망 통계상 이름, 성, 자료가 있는 박해 치사한 파룬궁 수련생이 4,126명에 달한다.

2016년 6월 22일, 캐나다 전 아태담당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 캐나다 저명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그리고 중국 문제 전문가 애단 구트만은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하여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 장기이식 수술 수량이 매년

암 말기 둘째 형이 3개월 만에 완치

[장시 투고] 나는 올해 73세다. 2011년 어느 날, 나는 외지에 있는 둘째 형님 아들의 전화를 받았는데, 둘째 형님이 심한 중병에 걸렸다며 암 말기라고 했다. 나는 즉시 차를 타고 그에게 갔다. 그들에게 도착하니 방법이 없다며, 몇 날 며칠 동안 링거를 맞아도 효과가 없고, 의사는 상태가 아주 심각해 해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나는 조급해 하지 말고 파룬궁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신기한 효과가 있으니 함께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쪐싼런 하오(真善忍好)를 외우자고 말했다. 나는 이어서 둘째 형님에게 파룬궁의 진상을 알려주고 ‘3퇴’하여 평안을 보전하기를 권했다. 그는 즉시 ‘3퇴’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해서 둘째 형님은 날마다 ‘파룬따파 하오, 쪐싼런 하오’를 외웠고, 신체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다. 둘째 형님의 병은 석 달도 안 되어 나았고, 2012년에는 공장에서 보안 업무를 맡았다. 둘째 형님은 10월경에 나에게 전화로 말했다. “이제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고혈압, 류머티스 관절염 같은 것들이 모두 나았어. 몇 달이 넘도록 약도 안 먹었어.” 2015년 6월 하순, 나는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는지 물었다. 둘째 형님은 부부가 모두 잘 지낸다고 말했다. 둘째 형님은 또 한 무가 넘는 밭을 경작한다고 말했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여기에서 나는 둘째 형님네 전 가족을 대신하여 대법 사부님의 자비로운 구도에 감사드린다.



유엔 제72차 총회가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거행되었다. 뉴욕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은 유엔 맞은 편 하마술드 광장과 인근 주요 도로에서 현수막을 들고 진상 전단을 배포했다. 이들은 이번 기회에 각국 정계 요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 공동으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저지하고 장쩌민을 법으로 심판하기를 희망했다.

약 6~10만 건이며, 이 장기들의 주요 출처가 파룬궁 수련생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생체 장기적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메스 아래 참혹한 죽음을 맞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박해에 맞선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박해 인권보호 활동은 줄곧 끊이지 않았고, 국제사회와 정의인사의 지지를 얻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20만 명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공 죄고 사법기관에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했다. 아시아, 유럽 각지의 31개 국가와 지역에서는 24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장쩌민을 형사고발하는 전 세계 연대 서명에 참여했다. 이들은 박해 원흉 장쩌민을 법으로 다스릴 것을 요구했고, 박해 원흉 장쩌민이 ‘인권 불량배’임을 널리 전파했다.

중국의 인권 악화는 국제사회의 관심사가 되었다. 2002년부터 미국 국회는 잇달아 188호, 304호, 605호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중공에 요구했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은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중공에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공에 대해 17년 동안 계속한 파룬궁 박해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기타 양심수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장기이식 계통에 대한 믿을 수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중공에 요구했다. 2017년 8월 15일,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신앙 자유 상황을 밝힌 2016년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심각한 종교 박해 문제가 존재하는 중국과 기타 9개 국가를 ‘특별 주시 국가’로 지정했다.

2016년 9월 12일, 유럽의회 전체 회의에서 유럽의회 의장 술츠는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유럽 연맹에 요구하는 48호 서면성명을 선포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대만 등 수많은 국가와 지역은 모두 중공의 파룬궁 박해에 대해 비난과 저지에 나섰고, 생체 장기적출 악행의 중지를 요구했다. 중공의 독재 폭정은 파룬궁에 그치지 않아 기타 종교단체와 국민에 대한 박해도 날마다 심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이다. 가오즈성 변호사는 파룬궁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중공 고위층에게 3통의 공개 편지를 썼다가 중공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고, 그로 인해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는 또 비밀리에 베이징에 감금되어 생사를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도 중공은 여전히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체포, 감금, 판결하고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중공의 마구잡이식 살육을 저지하고 박해를 끝내는 것은 늦출 수 없다.